



오영교 신임총장(왼쪽), 황기삼 전임총장(오른쪽)

제16대 오영교 총장 취임

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우리 학교의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24차 이사회에서 이사들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의 후보인 이황우(경찰행정학) 교수, 한태식(신학) 교수, 오영교 전 장관 중 만장일치로 오영교 전 장관을 선임했다. 오 신임총장은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해 2011년 2월 28일까지 4년간 재임한다. 오 총장은 지난 26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최근 언론에 소개된 현직 판사의 서울대·하버드대 수업 체험기사를 인용, 하버드 법대 교수들의 교육·연구에 대한 열정과 학생에 대한 완벽한 학사 지원이 자신이 바라는 대학경영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학교가 명문대학이 되려면 "내부고객인 학생, 교수, 직원이 만족하고, 외부고객인 기업과 학부모가 감동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오 총장은 선임된 직후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08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학교 발전방안을 만들어왔다. '108프로젝트'는 오는 13일 중앙강당에서 있을 선포식 및 대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108프로젝트의 주요 골자는 △'고객과 성과, 효율 중심의 경영'이라는 대학경영의 신모델 만들기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으로 유쾌한 배움의 장 만들기 △사업 개발기능 강화와 재정확충의 세가지이다. 이날 취임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심재덕 열린우리당 의원, 김문환 국민대 총장, 박범준 중앙대 총장,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원웅선 동동총학생회장 등 각계 인사들과 학생, 교

직원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제15대 황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의 이임식도 함께 이뤄졌다. 황 총장은 "새 집행부가 화해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취월장하길 빌며, 구성원 모두가 새 집행부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다소 주장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구성원이 화합해야 대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특집 3면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등록금 7.5% 인상 3차례 원탁회의 ... 제자리 걸음

우리학교 2007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재학생 7.5%, 신입생 8.5%로 책정된 가운데 학교와 총학생회(회장=정형주·통계4, 이하 총학)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 이유로 △마스터플랜 실현과 관련된 건물 신축·증축 △특성화 분야의 선택적 집중 △학생정원 감축 및 교원증원 △가계곤란 장학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캠퍼스 시설 개선을 비롯해 인트라 구축 등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해 구조개혁선도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학생정원을 10% 감축해야 하며 교원은 6.5%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원탁회의에서 총학은 일반학생들도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요구했고, 이튿날 다함관 세미나실에서 공개 설명회가 열렸다. 이어 지난 달 1일 진행된 2차 원탁회의에서도 학교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으며, 총학 역시 현재 제시된 등록금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재학생은 7.5%, 신입생은 8.5% 인상된 등록금이 고지됐다. 김연길 기획예산팀장은 처음 제시했던 9%보다 낮아진 인상률에 대해 "원탁회의 이후 자체적으로 예산재정과정선도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학생정원을 10% 감축해야 하며 교원은 6.5%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총학은 지난 1월 23일 첫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의견조율의 자리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이번 년도 환경 분석을 비롯해 △재정운용기본방향 △지출예산 개요 △예산확보 방안 △타 대학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공개했으며 가예산을 통해 추정 인상률로 9%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정형주 총학생회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지출은 지나치게 크게, 수입은 적게 편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철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사회3)은 "우리학교의 예산가운데 왜 재단적립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모르겠다"며 재단적립금 확충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총학은 이날 학교 측이 공개했던 가예산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수치자료에 대한 질의사항 19개를 회의 종료 후 학교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다. 학교는 "이 질의사항에 대해 이미 회의를 통해 답변한 내용이 있으며, 여러 부서의 자료를 취합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총학은 학내 곳곳에 붙여둔 성명서를 통해 19가지 질의의 답변과 이달 중 3차 원탁회의 개최를 학교 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정형주 총학생회장은 "학교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현재 신임총장 취임으로 인해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어 이 사안에 대한 논의 계획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 학교측에 요구한 19개의 질의 사항은 동대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총장 취임에 따른 직제 개편

오영교 신임 총장의 취임에 따른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학교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226차 이사회를 통해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요청안을 결의했다. 우리학교의 혁신을 강조한 신임 오영

교 총장의 정책 노선인 △단위기관의 자율·책임경영시스템 구축 △본부조직의 슬림화 및 정책개발과 고객관리기능 강화 △사업개발 및 자금조성기능 강화를 주목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단과대학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이 중요시되고, 대학

의 경영적 측면에서 주고객이라 할 수 있는 학생 및 기업 등의 만족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기능 신설이 눈에 띄는 변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경영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경영부총장제도 신설 △단과대학(학부) 중심의 분권화된 자율 경영시스템 구축 △대학장 권한 강화 △정책조정과 고객관리기능 강화에 따른 총장직속의 경영관리실(혁신관리팀, 고

객관리경영팀)의 신설 △전략, 개발, 운영, 학사 등 4개 기능별 본부제 도입 및 슬림화 △사업개발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부서(사업개발팀) 신설 △연구기관의 재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교육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3월 중으로 승인통보를 받아 4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본사 신임 발행인

본사 발행인이 오영교 신임총장으로 바뀌었다. 오 총장은 산업자원부 차관, 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본사 신임 경주 부주간

본사 신임 부주간 정성훈(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지난 1일자로 임명됐다. 정성훈 부주간은 우리학교 무역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학위 취득, 해상보험 및 국제운송 전공했으며 영국 웨일즈 대학교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교수 퇴임·신규교원 임용

지난달 28일자로 서울캠퍼스에서 총 6명의 교수가 퇴임했다. 퇴임식은 지난달 21일 본관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이뤄졌다. 퇴임교수는 △서윤길(불교학) 교수 △홍기삼(국어국문학) 교수 △유광진(정치외교학) 교수 △김변웅(행정학) 교수 △노완섭(식품공학) 교수 △윤현보(전자공학) 교수이다. 한편 정현(화학) 조교수 등 총 16명이 신규 교원으로 임용됐다. 이중 △박재호(영화영상학) 전임강사 △김중관(국제통상학) 조교수 △이재환(경영학) 부교수 △박형진(경영학) 조교수 △양동훈(회계학) 부교수 △이강복(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는 특별초빙됐다. >관련기사 4면, 5면

이사선임

지난 1월 22일 열린 제225차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지관 스님의 후임으로 정명 스님이 새 이사로 선출됐다. 임기가 만료된 해림 스님은 연임되었으며, 홍기삼 총장의 후임으로 오영교 신임 총장이 이사회를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감사 임기가 끝난 상운 스님과 성월 스님, 이홍섭 감사는 재선임되었으며, 이사였던 성오 스님의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보직인사

본교 보직인사가 3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서울부총장 겸 대학원장=한진수(회계학) △정각원장 겸 기숙사관장=박문기(종호(신학)) △불교대학장 겸 불교대학원장=이법산(법신)(신학) △문과대학장=정성호(철학) △이과대학장=김혜중(통계학) △법과대학장=이상영(법학) △사회과학대학장 겸 행정대학원장=양영진(사회학)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이병철(경영학) △생명과대학장 겸 실험

농장장=이명훈(식물자원학) △공과대학장 겸 정보산업대학장=조성구(산업시스템공학)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김혜숙(국어교육) △예술대학장 겸 문화예술대학원장=김방욱(연극학) △영상대학원장=차승재(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 △언론정보대학원장 겸 국제정보대학원장=강성윤(북한학) △교양교육원장=박명관(영어영문학) △국제교육원장=김일중(국제통상학) △사회교육원장=정장근(국제통상학) △기획처장=이형우(행정학) △교무처장 겸 학생처장=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 △대의협력처장=곽노성(국제통상학) △총무처장=백경선 △비서실장=조의연(영어영문학) △입학처장=고유환(북한학)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박형무(전자공학) △정보관리실장=김양우(정보통신공학) △학생처 취업지원센터장=조훈영(물리학) △중앙도서관장=석원경(화학) △캠퍼스마스터플랜건설본부장=김홍일(건축공학)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중권(수학교육) △박물관장=정우택(대학원 미술사학) △보건의료장=임성우(한의학) △연수관리소장=윤화영(산림자원학) △동대신문사 주간=윤재웅(국어교육) △출판부장=하정운 △교육방송국장=나병욱 △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학교운영본부장=이천중

명예·정년퇴직

본교 서울캠퍼스 직원 11명이 퇴직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퇴직=선상규(총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학교 운영본부), 차준환(체육실), 황우열(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김준호(아간강좌 행정지원실), 조성문(학생처 학생복지실), 이명호(정보관리실 정보자원관리팀), 박원규(중앙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이용운(총무처 총무팀), 손봉오(총무처 시설관리팀), 정은화(총무처 총무팀) △정년퇴직=정영민(총무처 총무팀) (이상 2월 28일자)

교·직원 인사발령

방학 중에 교원·직원 인사가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유비쿼터스물류관리연구센터장=이종태(산업시스템공학) △황사·사막화방지연구소장 서리=강호덕(산림자원학) △경찰·범죄연구소장=김보환(경찰행정학) △광고홍보연구소장=조형오(광고홍보학)(이상 12월 21일자) △법인사무처 총무과장=이형열 △법인사무처 총무부=유종우 △법인사무처 사업부(겸임)=박진수 △학생처 학생복지실=김규환(이상 2월 20일자) △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장운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김영진(이상 2월 28일자) △비서실=유광호, 김영민 △기획처 심사평가팀=주성태 △대의협력처 대외협력실=김진환 △총무처 총무팀=조성환 △경영대학원 및 경영대학 행정지원실=장금숙 △경영전문대학원 개원준비위원회 개원준비팀=홍성화(이상 3월 1일자)

본 사 사 령

◇ 임 차장
 ▲ 대학부 차장=김나리(경영대 회계2) ▲ 문화부 차장=문서영(사과대 정의2)
 ▲ 기획부 차장=이윤재(공과대 전기공2)
 ▲ 커머스스토리부 차장=최미혜(경영대 경영2)
 ▲ 웹미디어부 겸 여론부 차장=이송이(공과대 전기공2)

◇ 임 정지사
 ▲ 신용우(문과대 사학2) ▲ 선담은(사과대 정의2)

- 이상 3월 5일자

커머스스토리

새내기를 위한 선물
 다가져라!

07학번 새내기들이여! 여기 모여라~
 달라진 학사제도? 전공? 복수전공?
 궁금한건 다있다
 또한, 공강시간 제대로 즐기는 Tip까지
 와우~ 6면으로 가볼까?

시행 앞둔 직제개편 무엇이 달라지는가

단과대학 중심 경영운영 등을 위한 조직 변화 추구

우리학교 정관이 개정돼, 다음달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의 주 내용은 오영교 신임 총장이 새로운 대학경영의 모델을 만들고자 제시한 3가지 주요 노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위기관 자율성 확대

이번 직제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영부총장의 도입과 단과대학 중심의 대학운영이다. 기존 부총장의 역할이었던 교무 및 단과대학(원)의 학사 업무를 학사부총장이 담당하되, 이와는 별도로 대학의 사업개발 등 전문적인 경영 부문과 행정 분야를 책임지는 경영부총장 제도를 신설하였다.

경영부총장의 경우 외부에서의 충원도 가능하다. 외부인사 영입은 학내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얼마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냐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는 평이다. 또한 각 단과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계획과 재정 등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됐고, 대학장이 학부 및 대학원의 학사행정과 연구기관 업무를 총괄하게 돼 단과대학 중심의 분권화된 책임경영시스템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각 단과대에 알맞은 교육의 자생력을 살릴 수 있고, 단과대가 추진하는 계획이 본부를 거쳐 시행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법대 이상영(법학) 학장은 "학장이 많은 책임을 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본부제 도입

고객관리기능 신설

보통 일반 기업에서 이뤄지는 본부제는 대학 내 행정조직에서는 생소한 내용이지만 이를 도입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평적 팀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부의 업무 중 많은 부분

이 각 단과대로 이관됨에 따라 본부조직이 슬림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교무처와 학생처는 학사지원 본부로 통합된다.

정책조정과 고객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총장직속의 경영관리실(역신관리팀, 고객만족 경영팀)을 신설했다.

혁신관리팀은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의료원의 3개 권역 경영부문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고객만족경영팀은 대학의 내부·외부고객인 학생, 수험생, 기업 등의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신설됐다. 우리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에 대해 교내의 고객들에게 의견을 조사해 그 결과를 각 단과대나 연구기관에 통보해 발견된 문제점의 보완이 바로 이뤄질 수 있다.

사업개발 노력과

연구기관 재편

대학의 캠퍼스마스터플랜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수립

과 각종 수익사업 기획을 위해 사업개발부서(사업개발팀)가 생긴다. 오영교 총장은 지난 26일 열린 취임사에서 정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재정확충과 교육환경 혁신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대학의 중요 역할인 연구기관의 재편도 시행된다. 기존의 부설연구기관은 행정업무가 연구처에서 이뤄져 각 학과와 연계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단과대와 유리된 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부설연구기관은 각 단과대가 행정을 책임지는 단과대 산하의 일반연구기관으로 바뀌고, 자체적인 행정력을 갖고 있는 부속연구기관 중 문화예술원과 불교문화연구원, 생명과학연구원 등 교직원연구기관으로 바뀐다. 단, 이 중 공학인중 업무를 담당하는 공학교육연구센터는 공과대 학장 산하로 관리된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101번째 시작 ... 2007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학부모를 포함한 신입생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오전 11시 중강당에서 열렸다. 입학최우수자는 △인문=서주영(경영) △자연=서소연(산시공) △체재능=이중홍(영학영상)으로 계열별 총 3명이며, 서주영 군이 대표로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즐기세포은행 설립 위한 산학 협약 체결

우리학교와 주식회사 임젠이 즐기세포은행 설립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서(MOA)를 지난달 7일 체결했다.

이 제결로 우리학교는 임젠에 연구공간을 비롯한 기본 시설을 제공하고, 임젠은 우리학교에 즐기세포은행을 위한 주요시설과 운영비를 투자하게 된다. 우리학교와 임젠은 즐기세포은행 시설과 임상연구 시설·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즐기세포 분야 기술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외부연구비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21세기에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있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확신했다.

이 협약서에서 임젠은 즐기세포

은행 설립운영을 위하여 15억을 투자할 것을 약정했으며 이날 우선적으로 2억을 기부했다. 앞으로 우리학교는 즐기세포 은행 구축에 필요한 기본시설과 장비와 생명과학연구원 산하 의과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임상연구시설에 설치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에 기본시설의 설치공사와 기자재 도입을 정식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즐기세포은행 관리운영에 필요한 연구진은 우리학교 생명과학연구원 소속이 중심을 이루게 되나, 우리학교 임상병리학과 임젠에서 파견 및 지원하는 인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즐기세포은행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별도의 운영회사 설립 전까지 당분간 연구지원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했다.

동북아 평화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21세기 동아시아 역사분쟁과 지역공존 국제학술대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틀간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우리학교의 마지막 건학100주년 기념사업이었던 이번 학술회의에는 세계 6개국 23명의 석학이 참여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최근 한중일 3국이 당면해 있는 역사·영토 분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인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존공영을 모색해 바람직한 지

공공체를 결성하고자 진행됐다. 학술회의 1부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 파동, 독도문제 등으로 불거진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역사인식의 차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졌으며, 2부에서는 동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딛고, 공존공영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실현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자기 점검과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전과 결과 사범대·경영대 선호도 높아

전과신청 크게 늘어 ... 인기 학과 쏠림현상은 과제

교무처(처장=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는 지난 2학기부터 학생들의 전과기회를 재차 중 4번으로 대폭 확대하고 각 학과가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는 전공공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과기회 확대에 따라 2007학년도 1학기에 전과를 신청한 인원은 지난해보다 25%가량 늘어났으나 전과 합격생은 전체 학생의 약 9%로 예년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 합격률은 다소 떨어졌다. 이중 경영학과를 살펴보면 지원자 27명 중 7명만이 합격해 전과합격 기준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창조(경영학) 교수는 "기

준 학점 범위 내에서 경영학과 수업을 수강여부와 면접을 통한 적성고려 및 경영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MBA개원에 따른 학과 정원 감축이 전과인원에 영향을 미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학생들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총지원자 369명 중 약 69%가 사범대, 경영대, 사회과학대로 전과를 희망했다. 반면 이과대, 생자대, 공과대 등의 많은 이공계열 학생들이 학과를 빠져나가 각 단과대별 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식물생명공학과와 경영재학생 50명 중 30명이 타과로 전과해 학생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생명자원과학대 이명훈

(식물생명공학과) 학장은 "대입당시 교차지원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거 경쟁계열이나 인문계열로의 전과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학과의 쏠림현상은 지난달 9일 발표된 1학년 학부생들의 전공결정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경영학부의 경우 1학년 재학생 216명 중 182명이 경영학과를 선택했고 사회과학부에서도 학부생의 반 이상이 경제학과로 몰렸다.

이에 대해 경제학과 안형택 교수는 "경제학과에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높아지고 졸업 후 진로 선택 폭도 넓어 학생들의 선호도 또한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과 쏠림현상은 학생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학

과로 몰려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차지원으로 이공계 학과로 들어온 인문계열 학생들이 전공공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전과를 염두에 두고 학과에 입학하는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조준형(식물생명공학과) 교수는 "이러한 교차지원과 전과 등의 학사제도가 학과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학교에 입학하려 하는 이과계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기 위해 취지로 확대된 전과 제도가 무분별한 남발로 학생들의 전공 심화 및 학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과와 전공제도의 기존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입시·학사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당신들의 보이콧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O.T.)은 입시라는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난 새내기들에게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학생활의 첫 시작이다. 그런데 만약 대학이 O.T.참석여부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두고 자율에 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문과대, 법과대, 사범대, 예술대가 새터를 떠나기 이틀 전, 기자의 출입처인 법대 학생회에서 들은 얘기가 이번 취재의 시작이었다. 문·법·사범·예술대의 연합 새터에 필요한 구급품 지원 허가를 "문과대는 O.T.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지원을 해줄 수 없다"며 학생복지실에서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확인 결과 예술대 학생회장의 재 요구로 구급품 지원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일은 일단락됐지만 학생복지실이 O.T.에 앞서 총학생회를 통해 단과대 학생회장들에게 "O.T.에 참석하지 않는 단과대를 징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학생복지실 담당 직원은 "O.T.에 불참하는 단과대 회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어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브라보, MBA!" 지난 달 28일 경영전문대학원(원장=이병철·경영학)의 개원식 및 입학식이 남산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우리학교 MBA과정은 문화경영 MBA(CO-MBA)와 General MBA로 나뉘져 있으며 약 1000명이 입학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회전무대

재회불가

○...그남자 : 나는야 이과대 새내기. OT때 마주쳤던 문과대 그녀. 중앙 새터에서의 재회를 기대했건

만... 우리랑은 따로 간다.

그여자 : 나는야 문과대 새내기. OT때 짝이던 이과대 그 중앙 새터에서의 만남을 바랐건만... 우리랑은 같이 안 간다.

그남자 그여자의 사정 : 문과·법과·사범·예술대 학생회와 이과·경영·생자·공과대 학생회에게 모두 함께하는 중앙 새터란 애초에 없었다네.

수강오류타령

○...수강신청 날밤왔네 여덟시만 정각되어 클립질을 시작했네 수백번을 시도해도 로그인이 안된다니 면접까지 포기하고 수강신청 한다는데 통신장에 웬말이나

딜레마

○...100분 토론 중. 사회자=지난해 10월에 발생한 법대 모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당시 학교측은 3개월 정지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지난달 이사회에서 해당교수의 재임용을 결정했는데 요. 이에 대해 패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학교=이미 3개월 정지이라는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으로 이중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김동국=학생을 성추행한 교수가 버젓이 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퇴진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사회자=시청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학기 개설된 면대면 심층 강좌 안내				
영역구분	과 목 명	학점	개설학과	담당교수
Freshman Seminar	불교학의 세계와 그 전망	1	불교학과	김종욱
	지구촌시대의 지식과 지식인역할	1	영어영문학부	장시경
	동양의 세계	1	영어영문학부	김순영
	수확전공, 대학생활, 그리고 취업준비	1	수학과	김준석
	현대첨단과학과 미래기술의 세계	1	물리학과	양우철
	생명과학기술발전의 이해	1	생명과학과	정성식
	인권과 법치	1	법학과	김상겸
	기술진보를 통한 자기발전 및 설계 세미나	1	컴퓨터공학과	정진우
	가족생활교육의 이해	1	가정교육과	전미경
	역사는 인간과 어떤 형식으로 만날까	1	교양교육원	윤명철
Junior Seminar	예비 영어교(강)사를 위한 주니어 세미나	1	영어영문학부	윤현숙
	예비 통번역사를 위한 주니어 세미나	1	영어영문학부	김순영
	오늘의 생명과학	1	생명과학과	장원희
	법률윤리의 비교연구	1	법학과	연기영
	디지털기업 관리하기	1	경영정보학과	김경태
	영화특수효과를 촬영전비의 제작 및 활용	1	기계공학과	곽문규
	메가프로젝트로부터 배우기	1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이상일
	생명화학공학과 소개	1	생명화학공학과	박상진
	USB카메라와 LEGO ROBOT을 이용한 인간-로봇 상호작용 실험	1	컴퓨터공학과	정진우
	소비자학 커리어 세미나	1	가정교육과	박명희
Mentor Program	영어학의 활용: EIT 교재평가 및 개발	1	영어영문학부	미경
	회계자격증 준비반	1	회계학과	홍순직
	여학생을 위한 멘토링	1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김수민
	국어선생님의 길	1	국어교육과	이희훈
	역사교육 현장탐방	1	역사교육과	강석민
	중등가정교육과와 관련된 전문분야 경험	1	가정교육과	이수희

신임총장 프로필



오영교(吳盈敎) 제16대 총장

1948년 2월 13일 충남 보령 출생

학력

- 1966.2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
- 1973.2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1985.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2001.1 순천향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경력

- 1972 제12회 행정고시 합격
- 1999.5 ~ 2001.3 산업자원부 차관
- 2001.4 ~ 2004.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 2002.12 ~ 2003.8 고양국제종합전시장(KINTEX) 초대사장(겸직)
- 2004.1 ~ 2004.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혁신관리위원회 위원장
- 2004.8 ~ 2004.12 대통령 정부혁신특별보좌관
- 2005.1 ~ 2006.3 제7대 행정자치부 장관
- 2006.4 ~ 2006.12 대통령 정부특별보좌관

상훈

2002 은탑산업훈장

저서

- 일본통상성의 실제 1994, 포도원
- 변화를 두려워하면 일등은 없다 2003, 더난출판
-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유쾌한 혁신 2006, 더난출판

고객·효율·성과 중심의 대학경영 시스템 구축

각 분야에 대한 혁신 통해 장기적 발전 틀 마련 계획

지난 2일부터 오영교 신임총장 4년 임기가 시작됐다.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의 오영교 총장이 취임하면서 총장의 경영능력이 부각된 효율적인 대학 경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 총장이 취임 전 공약으로 내세운 새로운 100년에 대한 발전방안을 '유쾌한 혁신, 유쾌한 대학' 공약과 '108프로젝트'를 통해 살펴보았다.

오 총장은 우선 대학평가 순위 저조, 병원 운영의 불안정성 등 현재 우리대학의 기존 대학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현재보다 발전 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혁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통해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경영분야 = 경영분야에서는 고객·성과·효율중심의 대학경영의 신 모델을 창조하기 위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서울캠퍼스, 경주캠퍼스, 의료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3원 체제가 확립된다. 이에 따라 각 캠퍼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대학본부 중심이었던 운영체제에서 벗어나 단과대학 중심의 분권화가 이뤄지면서 단과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대학장 공모제 또는 추천제를 통해 학장 중심의 책임경영시스템이 구축된다. 캠퍼스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책임경영시스템을 도입해 특화 분야를 선택해 경쟁력을 제고시켜 병원운영을 정상화 시키도록 한다.

또한 전자 상에 효율적인 행정,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업무환경을 혁신시킬 계획이다.

▲교육분야 = 전공교육과정을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학문과정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특성화된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시행해 Ivy League 및 세계적 대학의 강의를 우리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체제를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교수 채용과 실무와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에게까지 교수채용범위를 늘린다. 채용 문화 개방을 통해 우수교수진을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교수진을 구축한다.

상위권 대학 수준의 대우 및 급여, 처우를 보장해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성과 중심 평가 방식을 도입해 우수성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성원 화합 = 동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총장과 함께하는 '동국인의 날'을

시행해 재학생, 동문, 교수, 직원이 하나 되는 화합의 동국문화를 구축시킨다. 이로써 동국의 자긍심 고취와 일체감을 형성하고, 최고의 교육·연구·사무 환경을 제공하고, 대우를 함으로써 내부만족도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또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대내외 행사 및 참신한 홍보 전략을 세워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새로운 100년 발전의 청사진

108 프로젝트

'108프로젝트'는 'World wide Dongguk'을 비전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프로젝트를 실행해 우리학교를 학문 분야에서 5개 분야 국내최

고, 3개 분야 세계최고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5대 혁신과제를 주축으로 108가지 발전방안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대학경영의 주요정책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108프로젝트'의 5대 혁신과제는 △신 경영 시스템 창출 △교육·연구 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환경 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 경영 혁신이다.

'108프로젝트'는 지난 1월 홈페이지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오는 13일 '108프로젝트 선포식 및 대토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108 프로젝트'에 따른 대학발전목표

2006년 현재	2008년 도약기	2010년 확산기
불교학, 영화영상분야 국내 최고 수준	3개분야 국내 최고, 1개 분야 세계최고 수준 달성	5개분야 국내 최고, 3개 분야 세계최고수준 달성
선(先) 집중 후(後) 확산		
선택과 집중	학교이미지 제고	전 대학 발전의지 확산

오영교 총장, 선임까지

- ▲ 2006. 2. 법인, '추대위' 통한 총장선출의사 밝힘
- ▲ 5. 23 비상 교수총회에서 '총추위 반대와 직선제 지지' 결의
- ▲ 5. 30 법인이사회, '총추위' 결의
- ▲ 8. 30 법인이사회 총추위 최종 결정
- ▲ 9. 15~19 교수회 총장후보 선출 선거 후보자 등록
- ▲ 9. 28 교수회 총장후보 선출 선거→ 전 교직원 91.7% 참여
- ▲ 10. 20 총추위 40인으로 구성·출범
- ▲ 11. 16 총장후보자 초빙공고 마감 결과 교내인사 5인 등록, 외부인사 없어 마감 연기
- ▲ 11. 23 오영교 전 장관 지원, 마감
- ▲ 11. 24 총추위 최종후보 투표방식 결정
- ▲ 12. 1 총추위, 오영교 전 장관, 이황우·한태식 교수 법인에 추천. 해산
- ▲ 12. 12 제224차 이사회, 제16대 총장으로 오영교 전 장관 선임
- ▲ 2007. 2. 26 제16대 오영교 총장 취임

오영교 신임총장 선출 과정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도입 첫 총장

각계 구성원 참여 ... 'CEO형 총장' 후보로 두각

오영교 신임 총장은 우리학교가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통해 선출한 첫 총장이자, 총추위 규정의 도입부터 오 총장이 선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법인 이사회는 홍기삼 총장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작년 2월, 교·직원 뿐만 아니라 학생, 동문, 종단 등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추대위' 제도를 통해 후임 총장을 선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금 마련을 위해 경영능력을 가진 CEO형 총장을 영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혀왔다.

이에 따라 9월, 총추위 규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총추위는 교원, 직원, 학부 및 대학원생, 종단, 동문, 사회인사 등 각계 대표위원 40명으로 구성돼, 10월 20일 출범한 후 12월 1일까지 세 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지홍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총추위는 총장후보 지원자를 공모하고, 지원한 6명 후보의 신상과 공

약을 심사, 투표를 통해 3인을 선발했으며 법인에 추천하는 역할을 한 후 해산했다. 이후 12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오영교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

총추위가 진행되는 이면에는 교수회와 직원노조의 지속적인 반발이 뒤따랐다. 교수회는 '총추위' 반대의사를 밝힌 성명을 수차례 발표하고, 직선제를 통한 총장후보 선출을 강행했다.

5월, 교수회는 총장후보선출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예비후보를 모집했고 여기에 이황우(경찰행정학), 한태식(신학), 염준근(통계학), 정용길(정치외교학) 교수가 등록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이후 9월 이뤄진 직선제 투표에는 전체 교직원 589.9명(직원 1인당 0.3표 적용), 서울캠 약 91.7%의 투표율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해 총장 후보로서 법인에 추천하기도 했다.

이에 법인은 처음의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은 "총장선출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총추위'로써 추천하는 역할을 한 후 해산했다. 이후 12월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오영교 신임 총장을 선출했다.

총추위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총장후보 중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추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었다. 이는 선출과정 내내 특히 논란이 된 점이기도 했다.

오 총장은 총장 후보에 지원한 6명의 후보중 단독 외부인사였다. 그는 지원할 당시부터 경영마인드를 가진 'CEO형 총장' 후보였던 점이 부각됐고, 제9대 정재각 총장에 이어 25년 만에 타대학 출신 총장이 되었다.

이주현 기자 niitake@dongguk.edu



퇴임교수 인터뷰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홍기삼(국어국문학) 전 총장, 故 김번웅(행정학) 교수, 윤현보(전자공학) 교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터뷰를 하지못해 간단한 약력을 소개합니다.

“동국인으로서의 반백년

소중한 시간”



서 윤 길 교수 (불교대 불교학과)

소감을 대신하는 서 교수에게서 진정한 동국인으로 살아온 40여년의 시간에 대한 애착이 느껴졌다.

중학생 시절에 슈바이처 전집을 읽고 사회복지학을 꿈꿔, 여기에 필요한 철학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학문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느껴지는 목마름 때문에 우리학교 대학원까지 거쳤다. 30여 년 동안 강단 위에서 제작들과 함께 호흡했고 학교행정에서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다양한 보직을 맡아왔다. 지난해에는 30년 근속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에 할 일이 많이 남았지”라고 말하는 서 교수. “학교에 남은 제자들을 끝까지 도와주지 못해 아쉽다”며 그의 평생 보람인 제자들을 남겨 두고 떠나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에게 교육방침을 묻자 교수는 모름지기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알려주는 강의’와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감동을 주는 ‘보여주는 강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자들의 인생지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줘야 한다고. 서 교수는 가르치는 이가 인격을 갖추고 모범을 보이는 ‘보여주는 강의’가 사랑이 넘치는 참 강의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불교이론 전달에 치우쳤기 때문에 퇴임 후에는 조용히 ‘보여주는 강의’를 실천하며 보내겠다는 서 교수.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표정 하나 지을 때 항상 그 대상의 마음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동국인들에게 조언을 남겼다. 이것으로 오늘 그의 강의를 여기서 마친다.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의사로서 195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슈바이처는 일생동안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 슈바이처처럼 우리학교 강단위에서 “지식인이 되기보다는 인간이 되자”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한 이가 있다. 바로 올해 정년퇴임을 맞이한 서윤길(불교학과) 교수.

사회복지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이념과 철학을 세우기 위해 64년 우리학교와 인연을 맺은 서 교수는 31년째 되는 올해 퇴임을 맞아 강단에서 내려오게 됐다. “아쉽고, 후련하고, 미안하다”는 말로 퇴임

“시간이 지나도

나의 동국 사랑은 식지않는다”



유 광 진 교수 (사과대 정치외교학과)

“확장시절 꿈꿨던 교수생활을 하며 기자, 외교관의 일도 간접적이거나 모두 겪어볼 수 있었다”는 유광진(정치외교학) 교수. “막상 내 공부를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지”라고 말하며 동약을 누벼온 46년간을 회상하는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의 확장시절은 가난한 학생의 신분으로 학과 공부와 그 외의 폭넓은 분야의 학문까지 파고드는 ‘3중고’를 겪어내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 뜻이 맞는 선배,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정치학연구회

동아리방은 그의 대학생활 대부분을 보낸 공부방이었고 잠자리가 되어주기도 했다.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지. 지금 학생들이야 상상이나 할 만한 상황인가”하며 허허 웃는 그의 목소리가 한없이 정겹게 느껴졌다.

어려웠던 시절 자신을 돌봐준 교수를 잊을 수 없다는 그는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 한다. 특히 자신과 함께 학교에 남아 교수가 된 제자들은 더욱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강의를 하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에게 가치중립적인 학문자세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는 “대학 교수는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고 학문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며 “무엇이든 지 여러 각도도 보아야 하고 어느 쪽이든지 전적으로 빠져들지는 말라”고 당부했다.

유 교수는 재직 중 여러 처장과 대학원장을 맡으며 폭넓은 학교의 업무를 처리했다. 다양한 자리에서 일해 왔지만 학교발전을 위해 좀 더 움직이면서 옮기기를 가지고 일하지 못 했으며 아쉬워하는 그의 표정 너머로 숨어있는 열정이 엿보인다.

앞으로의 시간은 대학원 강의를 하며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공부에 전념하며 보낼 것이라 밝히는 유 교수. 시간이 흘러도 식지 않는 그의 학구열과 학교에 대한 애정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동약과 함께 할 것이다.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홍 기 삼 전 총장 (문과대 국어국문학)

세무전공 현대문학(문학비평)

학위 본교 국어국문학 졸 본교 국어국문학 석사 쑤쿠바대 문학 박사



故 김 번 웅 교수 (사과대 행정학)

세무전공 행정학

학위 연세대 법학 졸 서울대 행정, S. California대 행정학 석사 Claremont대 행정학 박사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어”



노 완 섭 교수 (생지대 식품공학과)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48년을 미생물과 함께 해온 노완섭 교수(식품공학). 그는 우리학교 식품공학과 1기생으로 46년 전 처음 동국과의 인연을 맺었다.

오랜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한 만큼, 학내 구성원 중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노 교수는 대학교수의 가장 큰 영광이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훌륭한 학생들이 일류대학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라며 동국인들에게 특히 독서, 봉사활동, 취미생활의 3박자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노 교수는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지도자다운 소양을 기르는 것”이라며 꾸준한 독서습관을 이에 이르는 첫 번째 길로 꼽았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책을 접하다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길이 보인다고. 더불어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봉사정신도 중요한 덕목을 잊지 말라 한다.

그런가 하면 취미활동을 통해 즐기며 배우는 생활 학습의 중요성은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것이라 조언한다. 노완섭 교수는 개인 우표전시회를 열었을 만큼 우표 수집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는 “우표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그것을 학문연구에도 적용시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오랜 세월을 학교와 동고동락해온 만큼 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노 교수는 “현실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보수적인 생각을 깨야 한다”는 날카로운 충고를 했다. 더불어 “대학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 지난날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노 교수는 앞으로 그동안 연구해온 미생물학을 바탕으로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겠다는 의욕에 하루하루가 즐겁다. 또 비판교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합창단 활동을 해온 만큼 음악에도 조예가 깊은 노 교수는 “러시아 악기인 ‘몽과’를 배우고 싶다”며 배움에는 끝이 없음을 몸소 보여준다.

퇴임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앞 둔 그의 마음은 46년 전 그 해처럼 여전히 설렌다.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윤 현 보 교수 (공과대 전자공학)

세무전공 초고주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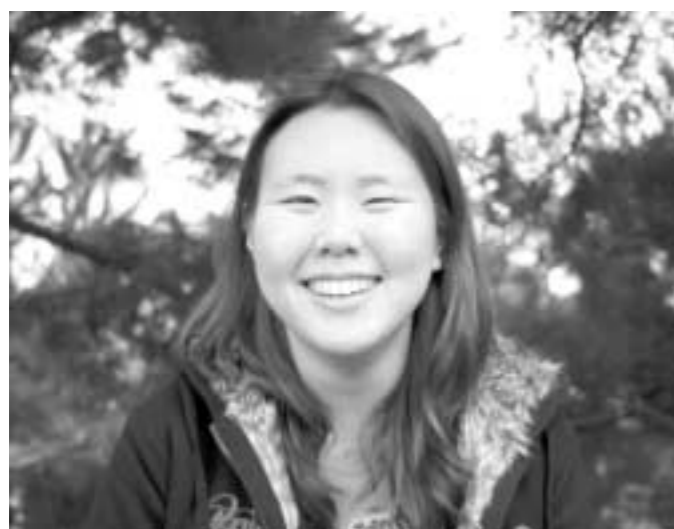
학위 항공대 전자공학 졸 단국대 전자공학 석사 인하대 전자공학 박사

정정당당한 선담은 기자 오늘도 나는 달린다!

서브쓰리(Sub3): 마라톤 풀코스인 42.195km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것.

많은 사람들은 서브쓰리를 꿈꾼다. 하지만 3시간이라는 꿈의 기록을 달성하기도 전에 중도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다반사다. 1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다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출발선 앞에서 나는 신문사 입사를 결정했다. 다른 동기들보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나에게도 출발선에서부터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대학 4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중요했기에 입사 후, 지난 5개월 동안 쉽 없이 달려왔다.

신문사에서 ‘학생기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캠퍼스에서의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늦은 귀가를 피할 수 없게 됐지만 ‘학생기자’라는 나의 선택을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신문사 때문에 학업에 소홀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기에 공부와 신문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치열한 수습생활을 보냈다.

입사 후 교육을 받고, 각 취재를 돌 때는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취재회의나 기사를 쓰는 일들이 마냥 즐겁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면서 갖는 스트레스와 의욕만큼 일을 해결하지 못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쌓여만 갔고, 나를 지치게 했다. 결국 시간 틈틈이 취재원을 만나서 취재하는 과정 또한 결코 수월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총장추천위원회를 취재할 때는 총장선출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던 시기여서 ‘총추위’란 단어만 꺼내도 취재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아 애를 먹었다. 간접한 마음으로 취재원들에게 몇 십번이나 전화를 걸면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기자로서 내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성장통을 거쳐 이제 정기자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내가 쓴 기사에 내 이름 세글자를 박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마음이 설렌다. 나는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기자가 되고 싶다. 숨이 턱만큼 차오르지만 다시 기나긴 마라톤을 시작하려 한다. 이번 역시 나는 반드시 완주할 것이다.

탈수습기



나에게 ‘신문기자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난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TV를 통해서나 보던 멋진 직업이며 언제나 진실을 추구하는 매력에 있는 직업.” 나는 그 매력에 빠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내 편집부에서 활동하면서 신문사에 대한 흥미를 키워나갔다.

다. 더욱이 전직 기자였던 큰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기자라는 직업은 나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였고, 대학신문사로의 도전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한번 입사모집에서 실패한 후, 또 기회가 생기자 나는 오히려 더 열심히 도전했다. 그래서 동대신문사는 더욱더 나에게 의미가 컸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말씀한 정장차림과 TV에서 보던 기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진짜 신문사 생활은 쉽지 않았다.

언제나 바쁜 동료기자들의 모습은 시작도 하기 전에 나를 움츠리게 했고, 허술한 사전조사로 대실패했던 첫 취재는 포기하고 싶게끔 했다. 이런 신문사 생활을 예상치 못한 나로서는 이런 모습들이 커다란 짐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겁에 질려 포기하면 안 된다는 내 안의 다른 의지는 언제나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 가족들의 격려와 알게 모르게 보이는 동료기자,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가 나를 계속 신문사에 있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무엇보다 재차 취재를 하면서, 부족한 실력이나나 스스로 원고를 작성하며 느낀 보람은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었다.

이제 수습기간을 지나 나는 동대신문사의 멋진 정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기자가 될 터

기자가 된다. 신문사의 일원으로 모든 일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어려므로 미숙한 부분도 많고 남들과의 대면에서도 늘 자신감이 없었던 나에게 아직 이 자리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에게 나를 돌봐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들어올 새로운 수습기자들의 선배이자 한 사람의 학생 기자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의 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신운우 기자 shinun2@dongguk.edu



2007학년도 1학기 신규교수



박재호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전임강사

100년 전통의 동국대에서 훌륭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의 전공은 영화 내에서 연출 분야입니다. 특히 프레임 공간구성과 기호학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뉴벨바그 사조가 현대 예술영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저의 주요 관심 연구분야입니다. 앞으로 많은 동국대 학생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동국대가 한국의 더 나아가 세계의 영화 매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화연출/작품제작실기 전공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주)씨네포엠 감독



김종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1987년, 나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새롭게 도전을 시작하였던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20년 동안의 배움과 경험을 훌륭한 후학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크나 큰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해외지역에 대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던 국제지역학 특히, 중동학을 우리 대학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동국대학교가 세계적인 지역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연구 전공 △명지대학교 아랍어학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한국의대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조성환
경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100년 역사를 가진 동국대학교에 오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제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인재와 세계를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재무회계 전공 △University of Iowa Accounting △Cornell University Economics 석사 · 박사 △안동대학교 부교수



백은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조교수

개교 이래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백년전통의 명문사학으로 자리한 모교에서 후배들과 함께 연구하며 연구실을 지키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이 되듯이 백년의 기초위에 다시 백년을 향한 동국대인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며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설계 전공 △동국대학교 건축공학 △일본 동경대학교 건축학 석사 · 박사 △일본 마쓰다건설 설계직



정현
이과대학
화학학과 조교수

91학번으로 동국대를 입학하여 졸업한지 정확히 10년이 지나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하듯 요즘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며 발전한 학교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다시금 모교 후배님들과 함께 새나기가 되어 여러분의 꿈을 키워가고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노화학(NT) 전공 △동국대학교 화학 △서울대학교 화학 석사 △서울대학교 화학 박사 △이화여대 지능형 나노-바이오소재센터 박사후과정연구원



강경훈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오랜 전통의 동국대에서 훌륭한 교수님들,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제 전공은 재무금융 분야인데 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여러 문제에 대하여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학문 탐구뿐 아니라 현실 금융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금융강국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커가는 모습을 미리 떠올려 봅니다. △재무금융 전공 △서울대학교 경제학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경제학 석사 ·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팀 연구위원



양동훈
경영대학
회계학과 부교수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이곳 남산 기슭에서 동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108개의 꿈을 가꾸고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학 일반 전공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Iowa Univ. 회계학 석사 △Syracuse Univ. 회계학 박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부교수



홍성규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조교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사학 동국대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국대가 지향하는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차별화된 연구 분야 개척에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노소재 전공 △동국대학교 화학공학 △九州(Kyushu)대학교 응용화학 석사 △九州(Kyushu)대학교 기능재료화학 박사 △삼성전자 액정기술팀 책임연구원



김준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992년 신입생으로서 음악의 문을 들이었던 것이 옛 그제 같은데, 2007년 모교의 강단에서 동국교원으로 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설렘과 다짐, 그리고 동국가족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애정도 함께 마음속에 새기며 최고의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선생님이시니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동국대 미시간 주립대(Michigan State University) 파견교원학생 제1기이기도 합니다. △정치이론(국제 정치분야 제외) 전공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Political Science 석사 · 박사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재환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오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동국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와 새로운 일원으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정적인 자세로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생산운영관리 전공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연세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삼성 SDI 상담역



이강복
경영전문대학원
문화경영 부교수

30년이란 오랜 동안 기업현장에서 불철주야 전력투구를 하다가 이제 예전의 학창시절로 돌아온 듯한 따뜻함과 반가움이 앞섭니다. 동국가족의 일원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옛 정열을 되살려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학생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국대 동국대 화이팅!!! △문화경영 전공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 △(주)CJ 고문



윤병운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조교수

누구에게나 첫 출발은 설렘이고 오랫동안 기억될 소중한 자산인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 백년 새로운 동국대학교에 새롭게 일원이 된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슴이 벅차지만, 새로운 백년 역사의 첫 장을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더구나 산업시스템공학의 철학이 이질적인 요소들을 조화롭게 조직하여 최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보탬이 되겠습니다. △생산관리/기술경영 전공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 박사 △캠브리지대학(CTM) Visiting Scholar



민세진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동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신입 조교수 민세진입니다. 3년 반 만에 아카데미에 돌아오게 되어 설레고 기대가 큼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교육자이자 책임 있고 열정적인 학자가 되고자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재정학 전공 △서울대학교 경제학 △University of California, LA Department of Economics 석사 · 박사 △삼성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박형진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동국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전공인 재무분야의 지식을 부족하나마 가르침을 통해 나누고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문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학생들과 다양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재무금융 전공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KAIST 경영공학 석사 · 박사 △KAIST 연구조교



황진한
공과대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조교수

101년의 동국대학의 역사에 무인승차한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앞으로 동국의 역사에 미력하나마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지식은 향기 없는 꽃이고 행동할 수 없는 생각은 몽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국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해안 및 항만공학 전공 △서울대학교 해양학 △University of Illinois 토목공학 석사 · 박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남근우
교양교육원 교수

새내기 친구들과 함께 '두드림'의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남산골 캠퍼스에서 우리들의 크고 작은 꿈을 상큼하게 일궈내고 싶습니다. △동아시아문화연구 전공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 △일본 쓰쿠바대학 역사인류학연구 석사 ·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07학번이 알아야 할 학사제도 여기에!

07학번 새내기. 자신감, 열정, 패기는 어디 하나 나무랄 때 없지만 이제 막 대학에 첫발을 내딛은 이들에게 학사제도는 아직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터. 07학번 새내기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학사제도는 무엇인지, 또한 새롭게 적용되는 학사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속속들이 들여다 보자.

신설강좌와 과목변경

올해 입학생부터는 전공수업과 영어공부,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

바로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 6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고홍보학과 신입생은 전공교육과정 영어강의 7과목을 포함한 1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영어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어실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한 올해부터 공과대 및 정보산업대 '수리 나열'에 응시한 신입생은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을 강의하는 '기초수학' 강좌를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초 이론을 더욱 강화 시켜 다음 단계의 강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일반물리학 및 실험 I·II 과목, 일반화학 실험 I·II 과목이 3학점에서 4학점으로 바뀌었다.

전공결정 및 복수·연계전공

학부단위로 입학한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전공결정. 불교학부, 영어영문학부, 사회과학부, 경영학부, 건축공학부 학생들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전공에 지원이 편중되는 경우 1학기 누계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배정하며 초과인원은 차 순위 지망전공에 순차적으로 배정된다.

주전공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폭넓은 학문의 세계를 맛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

다양한 학문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복수전공, 연계전공도 있다. 복수전공은 주전공 이외의 전공을 선택하여 주전공과 함께 이수하는 제도이고, 연계전공은 하나의 전공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통합교과과정을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전공을 접할 수

있을뿐더러 진로설정과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학년은 복수전공과 연계전공을 2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가능인이 생기는 전공에 대하여 지원자 중 평점평균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평소 학점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수강신청 및 정정

처음 하는 수강신청.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 갈팡질팡 고민만 하다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공강시간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 수강정정 기간이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말길. 오는 6일부터 3일간의 수강정정 기간을 이용해 꼭 듣고 싶은 수업, 나에게 꼭 필요한 수업만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15학점 이상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장학금'. 재학생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 복지, 종강, 특기, 불교, 세계화 장학금이 있으며, 동문회, 장학재단, 공공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여하는 교외 장학금도 있어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넘치는 열정, 설레는 마음과 더불어 학사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실속 있는 새내기기가 되어보자. 나에게 필요한 학사제도를 스스로 알아보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도 대학생이 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묘미가 아닐까.

최미혜 기자
Imisonaral@dongguk.edu



학내시설 100% 활용하기

공강시간 ... 멀티미디어실과 여학생실에서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수강신청을 통해 시간표를 마음대로 짜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수업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때처럼 수업시간표를 짜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공강시간(수업과 수업사이에 비어있는 시간)은 계획이 뚜렷하다면 천금같은 시간이지만 마땅히 할 것이 없다면 쓸모없는 시간이 되고 만다. 이것이 새내기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 부쩍이나 늘어난 자유시간 때문에 난감했다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공강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공간과 시설이 교내 여기저기에서 새내기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도서관에 있는 멀티미디어실은 AV실을 비롯해 TV, PC 등이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자료를 볼 수 있는 곳이다.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TV코너를 찾아가 보자. 케이블채널과 위성채널 시청을 할 수 있고 DVD나 VHS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 최신 컴퓨터가 있는 PC코너에서는 자료 검색, 인터넷강의 등 컴퓨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생생한 음질과 화질을 갖춘 대형스크린을 통해 영화를 보고 싶다면? AV실을 찾아가 보자. 최신 영화부터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공연실황 DVD까지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다. 멀티미디어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을 하고 난 후 이용이 가능하므로 무작정 찾아갔다가 헛걸음질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자. 또한 나 홀로 AV실을 사용하는 것



▲ 여학생실 1층 공부방

도 가능하다.

여학생들에게 때론 남학생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모여 수다 떨고 싶을 때가 있다. 여기 여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는 여학생만의 공간이 있다. 바로 여학생실이다.

1층에는 여성, 취업, 공부 등에 관련된 책 330여권이 있어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고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PC가 설치되어 있다. 2층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휴게실과 화장을 하거나 고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 혜화관 6층 '선표하나'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다치거나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도 있다. 우리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한 보건소에서는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을 때, 배나 머리가 아플 때 응급처치를 받거나 약을 달 수 있다.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항목을 검사해준다.

경사 높은 언덕으로 유명한 우리학교. 강의 들느라 캠퍼스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숨이 차고 쉬고 싶기 마련이다. 후문이나 중문, 어느 곳 하나 만만치 않다. 이를 위해 캠퍼스를 거닐다 힘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들이 곳곳에 있다. 원흥관 앞 백송쉼터, 본관 왼쪽 만해 시비 쉼터, 혜화관 6층 '선표하나' 등 캠퍼스 여기저기에 쉴 곳이 있다. 동약을 거닐다 짝이 나면 친구들과 수다 떨며 봄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동약에 있는 모든 것은 새내기여러분들이 주인이다.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 보자.

이윤재 기자
yiyoonjae@dongguk.edu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7학년도 봄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과정명	분야	세부과정명
교양교육	불교연구	불교란 무엇인가, 참선수행, 경전연구(능가경), 불교한문(금강경), 불교상당사, 한국불교초강좌
	건강	선요가(초급,중급), 선무도(교급,사범,연구반), 선요가초급,중급(야간)
	문화·예술	초급한문, 사군자, 문인화, 서예, 전통민화실기, 전통생활자수, 전통염색, 고전(전통)무용, 한지화(일반, 전문), 불교정통꽃꽂이, 회화기능사자격시험, 종선DIY 및 종선아트
전문교육	명리·풍수	명리학(초급,중급,연구반), 사주심리학, 사주명리학전문과정, 주역기생명리학(초급,중급,연구), 성명학(초급,중급,연구), 인상과 개운생원풍수, 벽계풍수(야간), 현공기풍수인테리어풍수사(야간)
	불교전문교육(5학기)	불교문화의 이해, 유식사상, 초기대승불교, 경전강독(1) * 과정 이수자는 동국대 총장령의 불교학 박사 인준서를 수여함
부동산과정	경 제	부동산재테크
	문화·예술	표현예술치료(1단계~6단계)
		POP(손글씨광고디자인)창업반
특별교육과정	건강	색채심리분석사, 명상심리치유사, 국제공인회면전문가자격과정, 국제공인NLP프랙티셔너자격과정, 명상음악치료
	생활	아로마테라피DIY창업과정, 커피전문가
자격증과정	아동미술심리지도사	*과정 이수자는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협의회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동화구연지도사	한국대학부설평생교육원 협의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
	한문지도사	- 아동미술심리지도사과정 : 전문대학 졸업이상
	주산활용교육사	- 주요전문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 한문지도사, 주산활용교육사
스피치지도사	스피치지도사 : 고졸이상	

2. 접수기간: 2007년 2월 1일(목) ~ 3월 10일(토)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학술관 1층)
3. 문의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행정지원실 ☎ (02) 2260 - 3728 ~ 9 / FAX : (02) 2260 - 3730 홈페이지 : http://edulife.dongguk.edu

행정·외무고시반 입실 신청 공고

2007~1학기 행정고시·외무고시반 입실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07. 2. 26(월) ~ 3. 9(금), 09:00~17:00
2. 신청장소: 만해관 4층 참고열람실(사진 1매 지참), 또는 행정고시반카페(http://cafe.daum.net/donggukgosi)로 신청
3. 선발기준: 1) 행정/외무고시 1차 합격자 2) 2007년 행정/외무고시 응시자(수험표 지참) 3) 토익, 토플 등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4) 기타 국가고시에 진지한 열의가 있는 수험준비생 * 졸업생 일부 포함
4. 선발자 공고: 1) 일 시: 2006. 3. 13(화) 2) 장 소: 행정고시반카페(http://cafe.daum.net/donggukgosi), 만해관 계시관 및 동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공지
5. 기타 문의사항은 09:00~17:00 2260-35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고시·외무고시반

생협 모니터 모집 안내

1. 모집기간: 2007. 2. 26(월) ~ 2007. 3. 8(목) 17:00까지(11일간)
2. 모니터 선정 통보: 3. 9(금), 17:00까지 유선 및 생협 홈페이지 (http://dgcoop.dongguk.ac.kr)
3. 실시기간: 2007. 3. 12(월) ~ 2007. 6. 15(금) 3개월간
4. 모집인원: 대학원 1명, 학부 5명 (총6명)
5. 모니터 방법: 생협에서 지급한 식권으로 식사를 한 후 설문서 작성, 월 1회 모니터회의를 실시합니다.
6. 모니터 평가내용: 1) 조리원 위생상태 평가 3) 식사의 맛과 질 2) 조리원, 판매원의 친절도 평가 4) 기타 복지매장 건의사항
7. 모니터 신청자격: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1구와 이상 출자한 조합원,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가입 후 활동 가능
8. 신청서 배부: 생협사무국, 생협 홈페이지 다운로드
9. 신청서 접수처: 생협 사무국(혜화관 1층) ▶ 문의: 2260 - 8949, 이제철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상반기 삼성계열 취업대비 SSAT모의직무적성검사 실시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입니다. 상반기 삼성입사 전형 중 SSAT직무적성검사 시행일이 3월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재학생/졸업생 여러분의 기업직무적성이해에 도움을 주고,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주)에듀스에 의뢰하여 SSAT 모의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검사종류	SSAT 모의 직무적성검사
2	일시 및 장소	검사실시일 - 3. 14(수) 오후 3시 ~ 7시, 본관 중강당
		피드백 설명회 - 3. 19(월) 오후 5시 ~ 7시, 본관 중강당
3	소요시간	240분
4	검사대상	취업준비 중인 재학생/졸업생(휴학생 가능)
5	검사비용	무료(13,200원 학교전액 부담)
6	접수일시	홈페이지 인터넷 600명 선착순 접수 2007. 3. 5(월) 09:30 ~
7	제한사항	접수 후 미응시자는 사유서 제출 미제출시 차후 응시 기회 제한 (매 학기중 2회 실시예정임)
8	기타문의사항	진로교육상담팀(교내 : 3935), 이메일(job@dongguk.edu)으로 연락요망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동국안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길

새로운 100주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총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첫 학기이다.



달하나 천강에

박형무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

3월이 되면 1만2,000여 명의 젊음이 교정에 충만하기 시작하고, 437명의 교수님들이 약 1,800개의 개설된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신다. 여러분은 왜 인생의 황금시기인 20대에 4년 이상의 긴 세월과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투자하면서 동국대학을 다니는가?

필자가 학생이었던 당시에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면 누구나 취직이 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선배들이 생활하였듯이 적당히 대학 생활을 하면 투자한 시간과 등록금이 그대로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졸업 후 동국 가족으로 멋진 인생을 보내면서 국가 발전에 리더가 되기 위한 학창 시절을 몇 가지 정리한다.

1. 졸업 후 목표를 구체적으로 빠른 시기에 정하라.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대학 생활은 졸업 후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다. 삼성 전자가 원하는 인재상이나, 공기업에서 원하는 취업조건,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상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에 맞춰서 맞춤형 대학 생활을 해야 한다.

2.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하라.

1달에 1권 이상의 책을 반드시 읽기를 권한다. 작년에 대한민국의 일인당 소득은 약 1만5,000불 정도인데 국가별 일인당 소득 통계에 재미있는 현상이 있다.

세계 약 200여개 국가 중에서 1만5,000불에서 4만불 사이의 국가는 28개국으로 약 8억 명의 인구가 여기에 속하는 반면 1만5천불에서 7,500불 사이의 중산 국가는 11개국 1,300만 명만이 속해있고, 7,500불 이하의 나라는 169개국으로 50억의 인구가 여기에 속해있다. 대한민국이 1만5,000불 이상의 선진 국가로 계속 남아있을지 아니면 7,500불 이하 빈민 국가로 다시 회귀 할 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서로우' 씨의 '세계화이후의 부의 지배', '프레스토위츠' 씨의 '부와 권력의 대이동'과 같은 책들을 통하여 최소한 앞

으로 1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이며, 특히 새로운 산업구조, 새로운 사회 구조, 중국과 인도의 변화 등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해 대비하기 바란다.

3. 우리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이용하라.

우리대학의 건학 이념인 불교 정신은 두뇌과학 관점에서 무한한 능력 개발과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보물이다. '자아와 명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2003년 타임지 8월호에 의하면 기독교 국가인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메디테이션'이란 이름으로 명상이 정규 수업 과정에 채택되었고, 이런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

참선을 하면 집중력이 향상되어 두뇌가 명석해지고,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뇌내 물질이 분비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로 성장하는 데 이번 신학기가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보리소

재산목록과 보장자산, 그리고 보시행

옛날 어떤 사람이 국왕으로부터 재산 목록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고 과거에 거지에게 빌 한 끼 준 일이나 집승들에게 먹이로 풀이나 곡식을 준 일 등을 낱알이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제출하였다고 한다. 이에 국왕이 재산 목록을 내놓으라고 거듭 재촉하자 그 사람은 오직 재산이라고는 이 책자에 기록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대장업론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진정한 재산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볼게 하는 말씀이다.

요즘 고위공직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데 대개는 최저 가격으로 축소 등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같은 재산인데 세금 낼 때는 축소하고 은행에 담보 넣을 때에는 부풀리고자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듯하다.

"당신의 보장자산은 얼마입니까?" 요즘 방송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어느 생명보험회사의 광고 카피의 한 구절이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풀어보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혹은 병이 들었을 때 얼마의 보험금을 받는가?" 라는 뜻일 게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과 가족을 불행으로부터 지키

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겠고 기왕이면 보상금액이 큰 보험을 들어야겠다는 은근한 압력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절집에서는 보시와 선행을 권장하기를 내생의 행복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물론 진정한 보시는 무주상 보시여야 하겠지만 장사상에 밝은 중생들에게는 내생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인과법의 보험증권이 없다면 어찌 쉬이 주머니 돈을 꺼내어 남에게 주겠는가.

하기가 보시하고 착한 일 해야 복 받는다는 금구성언은 오늘날 쾌락과 소비를 만끽하며 하루살이나 반딧불처럼 살아가는 일회성의 인생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지나온 무량겁 동안에 내가 지어온 선행의 보시목록은 얼마나 될지, 앞으로 세세생 이어갈 영원한 생명의 여정에서 진정한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보험증권은 무엇일까? 새 학년 새 학기 새봄에 옮기는 첫걸음의 발걸음이 새삼스레 긴장되고 조심스럽다.

이학주
사범대학부속고교 교법사

메아리

담합금지

▲ 루소의 '사회계약론' 제2편에는 '인민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의결하려고 할 때 일부 시민들이 사전에 어떤 편파적인 이익을 담합하지 않는다면 그들 간에 생기는 작은 의견 차이의 총계에서는 항상 일반의지가 생겨나고, 그 의견은 항상 올바른 것이 될 것이다'라 나와 있다. 사회안에서 자유를 존중해 줘야 하지만 '담합'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뜻한다.

▲ 교복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공동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교복 업체와 학부모간의 불신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교복업체의 이윤이 감소하기에 담합을 통해 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교복업체들을 조사해 본 결과 "교복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복업체의 담합에 휘둘러 터무니없이 비싼 교복가격의 부담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다.

▲ 현재의 교복 가격은 고등학교

1/4분기 등록금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복가격이 매해 증가하게 된 요인에는 교복업체간의 경쟁심화와 교복광고 비용을 들 수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복업체가 점차 늘어나 교복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사의 교복을 홍보하기 위한 연예인을 고용, 광고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생각하고 소비자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교복업체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교복가격에 관한 사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수방관자세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교육부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언급한 결과관정에서의 '약'은 바로 '담합'이었다. 각 입장과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한 '담합'은 결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다. 그것은 늘 담합에 의한 피해자를 만들기 일쑤이다.

이번 교복가격 담합 사태를 통해 기업은 이윤추구에 치우쳐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잠시 망각했던 것은 아닌지, 교육부 역시 교육 수요자를 위한 방법·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 유훈해야 할 것이다.

강지혜 편집장
iamjh713@dongguk.edu

사설

신임총장에 거는 기대

지난 2일부터 오영교 총장의 4년 임기가 시작됐다. 오영교 신임총장은 지난 2일 취임사를 통해 "우리대학은 가장 경쟁력 있는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가장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가장 우수한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실천하는 대학이 되어야만 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기업보다 더 효율적이고 스피디한 경영의 실천장이 되어야 하고, 연구소보다 더 깊이 있는 학문연구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학교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오영교 총장이 이끌게 됨에 따라 앞으로의 학교발전 방향에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적 관심과 기대가 크다.

오 총장의 대학혁신 계획은 그동안 대학 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던 각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과 구성원들의 위기의식 해소가 시급한 현실에서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그 요구들 간에 서로 배치되는 것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오 총장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본사가 지난해 우리학교 학장·학과장·과장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차기 총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학내 구성원들은 외부발전 자금 조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재원확충을 통한 효율적 경영이 대학발전의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이다.

대학 본연의 역할은 학문연구와 인재양성이지만 오늘 날에는 대학에 대한 정부와 외부의 투자가 미약하기에 대학도 기업이상의 효율적 경영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학교 경영 차원에서는 효율적인 학교 경영체제 속에 학문연구의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문·연구분야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투자와 개편, 우리학교를 상징할 수 있는 학문분야에 대한 특성화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학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신뢰와 지지 속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할 때 그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13일 오 총장이 취임 전부터 기획해 의견수렴을 해왔던 '108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우리학교의 장기적 발전상을 제시할 '108프로젝트'가 앞으로의 4년, 그리고 새로운 100년 발전에 힘을 힘껏 실어줄 수 있길 바란다. 새로운 100년 발전을 선도할 신임총장의 과감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동국만평

이주현 nitake@dongguk.edu

각 대학 등록금 담합의혹... 서민부담은 언제까지?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편집장 강지혜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3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독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 정**
일 시 : 3월30일(금) 오후3시-5시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진 행 : 화학과 여인형 교수
신청도서 :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 1/ 페니 르 쿠테, 제이 버 레슨 공저, 사이언스북스 2007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신청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서 관련 동아리의 단체 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2007년도 1학기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 신고 기간** : 2007년 2월20일(화) ⇒ 3월9일(금)(3주간)
- 신고 대상**

가. 2007년도 입학생, 편입생 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나.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학부, 대학원)중 예비군 신분의 학생
※ 대학원의 연구, 관리자 과정/복학과 동시 휴학자는 신고제외
※ 금년도(07) 전역자는 2008년도 2월에 신고 및 접수

- 신고 장소** : 예비군 연대본부 사무실 (본관 2층)
- 신고 시 지참물**

가. 전역증 (군번, 주특기, 임명일, 전역일 등 신고서 작성시 필요)
나. 등록금 납입 영수증 (미등록자는 대학예비군에 편성불가)
* 등록금 납입 영수증 분실자는 전입 신고시 확인가능
* 등록금 분할납부/학자금 대출 신청자는 연대본부에서 확인서 작성 후 전입신고 가능함

- 기타 상세 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2260-3073~4
※ 휴학기간 중 지역에서 부과된 훈련미필지는(06/07) 신고시에 필히 훈련결과를 실무자에게 통보바람
※ 대학 직장 예비군에 편성하여 면학분위기에 기여함은 물론 법적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직장 예비군 연대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쇠고기국밥 (2000)	육개장 (2000)	된장찌개 (3200)	김치콩나물국 (2300)
	오삼불고기덮밥 (2200)	제육볶음 (2000)	알순두부찌개 (3500)	설렁탕 (2900)
	안동찜닭 (2000)	콩나물비빔밥 (2000)	닭도리탕 (3500)	푸꾸미야채덮밥 (2500)
화	닭개장 (2000)	갈비경단백반 (2200)	된장찌개 (3200)	해물야채죽 (2300)
	치즈볶음밥 (2000)	날치갈비치볶음밥 (2000)	영양김치탕 (4000)	수제돈가스정식 (2900)
	삼선적구이 (2200)	닭조림 (2000)	두부김치 (3500)	순두부찌개 (2500)
수	부대찌개 (2000)	설렁탕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미역국 (2300)
	돈가스 (2500)	간지장면 (2000)	해물전골 (3800)	김치야말 (2900)
	돈육콩나물볶음 (2000)	라조육 (2000)	카레라이스 (3500)	양지떡국 (2500)
목	산채비빔밥 (2000)	장터국밥 (2000)	된장찌개 (3200)	아욱된장국 (2300)
	닭갈비 (2000)	매운오삼볶음밥 (2200)	돈가스 (3500)	떡배기불고기 (2900)
	해물굴스튜음밥 (2200)	떡볶고기 (2000)	오징어덮밥 (3500)	카레라이스 (2500)
금	손만두국 (2000)	떡김치찌개 (2000)	된장찌개 (3200)	탕국 (2300)
	돈육고구마김장 (2000)	하이라이스 (2000)	삼겹살치볶음쌈 (3800)	오무라이스정식 (2900)
	순대볶음 (2000)	김치탕 (2000)	황태구이 (3800)	해장국 (2500)



새내기를 위한 동아리 가이드맵

신입생들의 알쏭달쏭 동아리 탐색전 ... 적극적인 태도로 두드리길

“동순아 너 혹시 동아리에 들어갈거니?”
“동아리? 고민 중이긴 한데..... 뭐가 무슨 동아리인지 알아야 말이지.”

동아리 홍보 포스터 앞에서 고개만 가우뚱 거리고 있는 동순이와 동국이의 대화가 와 닿는다면 몇몇 동아리들의 홍보 일정과 뽑내기에 귀 기울여 보자.

뚜렷한 나만의 시각 - 학술 1분과

‘팍스철학연구회’는 FT나 노동자집회 등 여러 집회에 참여하면서 사회의 팍박받는 이들에 대해 공부하고 그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다. 페미니스트만의 모임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 ‘셋바람(여성문제연구회)’은 누구나 참여해 토론과 세미나를 즐길 수 있다고. 이번 달 중순에는 학술 1분과가 함께 학생회관 앞과 동국관 로비에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학생은 눈여겨 볼 것.

함께하면 나도 전문가 - 학술 2분과

‘DUSSA(통계조사연구회)’는 매 년 1학기 동국인 의식조사, 2학기 서울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팸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하고 전시회를 연다. ‘자연과학연구회’는 이번 달 중순 태양관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고 전문사진전시를 할 예정이다. ‘TIME(영어연구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TIME 칼럼 발표를 하는데, 동아리원이 아니더라도 청강이 가능하다.

숨겨진 예술감각 깨우기 - 예술·창작분과

‘동그라미(사진연구회)’는 다음 달 초에 사진전시회인 신인전을 연다. ‘서도회’는 서예를 배우는 것 외에도 한자를 익히고 성격을 차분히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푹심(판화 동아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판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필름영화에서 디지털 영화 제작 방법을 바꾼다는 ‘디딤돌’은 영화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영화도 제작한다.

넘치는 끼를 분출해볼까 - 공연분과

‘극예술연구회’는 오는 8월부터 이틀간 7시, 10월에 4시와 7시에 학관 5층 소극장에서 신입생 환영공연을 마련했다. ‘현여울(클

래식 기타 동아리)’도 오는 10일 6시 본관 중강당에서 신입생 환영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순수 창작음악 동아리 ‘몽계구름’ 또한 6일 팔정도에서 12시, 학관 앞에서 5시부터 각각 두 시간 동안 신입생을 위한 공연을 마련한다. ‘AD.RUSH(광고 동아리)’는 오는 19일 광고기획사 선배를 초청해 공개스터디를 열 계획이다.

너와 나의 소중한 연결고리 - 사회분과

‘동불(불교학생회)’에서는 학과를 불문하고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활동하며 좌선을 하는 특성상 동아리방이 따끈한 좌식 온돌방으로 되어있다. 또 16개 대학과 함께 사회봉사하는 ‘UNSA(국제연합학생회)’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난민사 진전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모금을 할 예정이다.

사랑으로 만나요! - 봉사분과

‘젊은새이웃’은 KT&G에서 2005년부터 정식후원을 받고 있으며 연세사회복지관에서 교육봉사자를 하고, ‘길’은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 어린이를 돌보는 자람 교실을 운영한다. ‘ELF’는 삼동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다. ‘손짓사랑회(수화동아리)’에 관심이 있다면 팔정도에서 열리는 12, 14, 15일 오후 1시 공연을 눈여겨보시길.

우리는 연구 삼매경 - 연구분과

‘F.O.D.E(경제학연구회)’는 동아리 자체장학금을 2명씩 지급하고 매년 1회 경제 학술 논문을 발간하고 있으며, ‘D.U.I.T(국제통상연구회)’에서도 학기당 자체장학금을 2명씩 지급하고 있다. ‘회계학연구회’는 모의 증권 투자와 연구회

특강 등을 한다.

무한체력 문제없다 - 체육·교양분과

학관 뒤로 약 10미터 높이의 암장을 소유한 ‘산악부’에서는 자연암벽등반 뿐만 아니라 인공암벽 등반인 스포츠 클라이밍도 즐길 수 있다. ‘수중탐험연구회’는 대학 최초의 스쿠버 동아리인데,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장비를 상당히 많이 보유한 편이라고. 단순한 레저스포츠가 아니라 탐험을 지향한다.

알고보면 알짜배기 - 준동아리

‘OPUS’는 음대가 없는 대학 가운데 유일한 오케스트라 동아리로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연주규모가 50명 이상인 클래식 정통 오케스트라 동아리이다. ‘RICH(투자동아리)’는 자체 동아리펀드가 있고 동아리원 대부분이 실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앙증권증권이 실시하는 증권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인 BUS에 두 번 연속 선정되었다.

갈팡질팡 어느 동아리로 발걸음을 향할지 신입생들의 행복한 고민은 이미 시작된 듯하다. 정말 끌리고 내게 꼭 맞는 동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주위를 둘러보라. 예전부터 익히 들어오지 않았던가. 대학의 진정한 로망 중 하나는 동아리라고.

문서영 기자 syoob@dongguk.edu



말말말을 들어보자

동아리에 가면 △△가 있다!

두려운 반 설렘 반 이제 막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들, 으레 한번쯤은 학생회관과 게시판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홍보 포스터에 발길과 눈길이 머문다. ‘대학생활의 꽃’은 동아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껏 품고 왔지만 막상 들어가자니 망설여진다. 하지만 ‘뽕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라는 말은 바로 동아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인맥

‘대학에 들어와서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대학에 다녔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서울지역 16개 대학과 연합하고 있는 ‘국제연합학생회(UNSA)’의 권용근(전기공2) 회장은 “마음만 먹으면 1년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고 귀띔한다. 투자동아리인 RICH의 서민우(국통4) 군은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게 강연을 듣는 등 접촉이 잦아서 일반 학생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접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폭넓은 경험 & 추억

봉사동아리 푸름누리의 옥진원(산시공2) 회장은 농촌봉사 활동을 통해 벼 베기, 논 잡초 뽑기 등을 순수 해보고 농민들의 노고를 느낀 경험담을 풀어 놓았다. 그런가하면 새록새록 쌓이는 에피소드도 쏠쏠하다. 산악부의 손지영(경영4) 양은 “폭우가 쏟아지던 여름날의 등산과 두 번 씩이나 정사에서 받았던 생일 케이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취업 & 학업

인사담당자가 동아리 활동 경력과 관련해 인성 측면에서 점수를 줄 수 있고, 취직을 원하는 곳과 동아리가 같은 계통인 경우 기타 조건이 비슷한 다는 지원자에 비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 장지훈 상담원은 “단순히 친목을 다지기보다는 꾸준히 동아리와 관련된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TIME의 임영환(국문3) 회장은 “자연스럽게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법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

봉사 학습

참사람봉사단과 연계해서 ‘사회봉사 (1), (2)’ 봉사학습점을 받을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있는데 길, 손짓사랑회, 젊은새이웃, 푸름누리, RCY가 여기에 속한다. 동아리 차원에서 봉사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33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한 경우 1학기에 1학점을 인정받으며 졸업까지 총 2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영화동아리 디딤돌에서 활동을 했던 튜브피쳐스 정현일(식품 01졸) 실장은 “동아리 생활을 하다가 영화에 대한 욕심이 커져서 진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학창시절의 동아리 경험이 끼치는 영향은 막연한 기대 이상이다. 동아리에 대한 욕심은 있지만 머뭇대고만 있다면 일단 한 번 두드리 보자.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학생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개혁연세 계진로 및 취업방향을 제시하고 고학년에 계실실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하고 1학기(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 : 전학년
2. 접수안내 : 1회~10회 접수: 본관 취업지원센터 선착순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재의원/교내 3935)
3. 모집인원 및 장소 : **외당 선착순 100명 다량반 세미나실**
4. 강의내용 : 업종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실용성담
5.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회차	일시	내용	강사명	소속
1회	3월20일	2007년 업/직종별 채용시장 가상도	정유민	job코리아 상무
2회	3월27일	<IT업> 유비쿼터스 시대 새로운 일꾼되기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공효식	LG전자 인사팀 과장
3회	4월3일	<금융업(은행)> 금융권용 JOB이라!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박태상	기업은행 인사부 과장
4회	4월10일	<건설업> 취업하면 해보라!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한용석	포스코건설 인사기획 팀장
5회	4월17일	<영업직> 판매왕 될 수 있다.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박노진	대우자동차 상무이사
6회	5월9일	<유통업>유통시장을 알면 직장이 보인다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심하보	삼성테크노 채용과장
7회	5월16일	<공기업> 바늘구멍 통과 전략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고태호	한국토지공사 인사채용차장
8회	5월22일	<교사> 사립학교를 뚫어라!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민 해	혜원여자고등학교 교감
9회	5월29일	이재용 아니어서 따라잡기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재용	MBC 아나운서
10회	6월5일	큐레이터가 되고싶다! - 채용동향 및 인사전략	이주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학생사업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여대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을 계기로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제1기 일정 장소 및 대상 : (2007. 3. 16(토)) ~ 2007. 3. 18(일) 본관 8172(이강길 여대생)
- 제2기 일정 장소 및 대상 : (2007. 3. 30(토)) ~ 2007. 4. 1(일) 본관 8172(인문사회계열 여대생)
- 제3기 일정 장소 및 대상 : (2007. 5. 11(토)) ~ 2007. 5. 13(일) 본관 8172(전역 여대생)

■ 프로그램 안내 :

구분	시 간	교 육 명	장 사
(금)	17:30~19:30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진단검사 MBTI성격검사/직업선호도검사	진로교육상담팀, 진심상
	9:00~10:50	여성의 생애설계와 비전만들기	지윤정 (과대인)
	11:00~12:50	여성 셀프리더십	손은영 (과대인)
	13:00~13:5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토)	14:00~15:50	WOMAN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기법	이은정 (과대인)
	16:00~17:50	연습 Image Making	장혜미(과대인), 박민정(과대인), 공경원(과대인)
	18:00~20:00	인사서류 클리닉	손영희, 여소영, 황형희, 이가영 (취업지원센터)
	10:00~11:50	★커리어우먼 직업찾기★ 여성유망직종 탐색 및 취업전략	이은은 (취업지원센터)
	12:00~12:50	점심시간 및 Break time	
(일)	13:00~14:50	커리어우먼 실전 액션	김주영(인사팀), (내), 김홍분(부장 (과대인))
	15:00~16:50	일당 컨설턴트의 전공별 소그룹 모의면접 시뮬레이션	이종관(과대인), (내), 김홍분(부장 (과대인))
	17:00~18:30	신배와의 대화	안성진(상생복지), 이지영(상생복지), 최은희(상생복지), 오은희(상생복지), 최은희(상생복지), 김성희(유학문화)
	18:30~19:00	행사 평가 설문조사 및 수료식	진로교육상담팀
	19:00~20:00	멘토링 TIME 신배·후배 식사 및 간담회	진로교육상담팀

■ 접수안내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선착순 50명 접수 (문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재의원 / 교내 3935)
■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장양식: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
■ 모집인원: 기수별로 선착순 50명 (예비인원 50명까지 신청가능)
■ 특 점: 점심식사 및 음료/과자 제공
주요종 발급(학점차점 명칭) → **진심상인문대학 커리어우먼 연수 시 필수 요건 시간**
우수참여학생 기별 3명선발 상용 지급(1 GB USB 메모리장치)
프로그램 종료 후 희망학생들 그룹 스터디그룹으로 연계(활동비지원)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저 학생 참 관 찰 다

은시사적 1학년 재학생
원시적 3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전체인사 3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
원시적부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종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보혐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